

2003. 6. 30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거창군의회 신주범 의원

잘못된 선택은 퇴보를 조장하는 악마의 집중이다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주범 의원입니다.

올초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쌀생산조정제, WTO 재협상 등 한결같이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위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농업위기의 적신호는 여전히 꺼질 줄 모른 채 속수무책이며, 대안없고 일관성 없는 농정으로 우리 농민들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어 현재 국회의 비준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서도 관세없는 동일기준이 제시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국회는 국익에 반할 뿐 아니라 농업을 포함한 1차산업 포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상 비준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에서도 이 비준거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까지의 중앙집권, 집중시대에서 분권·분산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명제는 지금까지 고도성장 중심의 국가 경영이라는 그늘에서 소외받고 뒤쳐졌던 우리 지역도 발전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거창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과 권한에 휘둘리는 거창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을 계획하고 이를 표화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지역, 무한경쟁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창만이 가지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창만의 독특한 발전 전략으로 거창의 백년대계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김태호 군수님의 『희망21!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거창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1세기 거창의 희망을 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성공여부의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선택에 있습니다.

선택은 발전가능성, 균형성, 희망 등 합리적인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결여한 선택은 거창의 균형발전과 희망이라는 탈을 쓴 중복투자, 지역갈등, 퇴보 등을 조장하는 악마의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엄숙한 이 자리에서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창읍사무소 이전지에 대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강남지역 이전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사는 항상 지난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미래를 향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청 자리만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사무소가 예정대로 상동 신시가지로 간다면 강남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과 지역 불균형 등 지역간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태호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희망21!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간시설 및 인프라 기반이 취약한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낙후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음과 지역화합에도 배치됨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남과 강북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거창읍사무소 이전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강남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거창군의 균형 발전과 미래에 후회없는 멋진 선택을 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